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김도윤 기자

승인 2025.05.21 17:50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한국영농신문 김도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는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월산면에 위치한 월산2저수지에서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저수지 범람 및 붕괴상황을 가정해 주민의 안전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의적 단계별 상황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담양지사 직원들은 비상대처계획(EAP)을 토대로 상황반, 대책반, 복구반, 지원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재난 상황보고 ▲지역 주민대피 ▲유관기관 상황전파 ▲응급복구 등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배양했다.

김건경 담양지사장은 "이번 훈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사의 ESG경영실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비상대응체계 및 훈련을 통해 안전한 농어촌, 신뢰받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nh9669@daum.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